

미국, 이란 해상봉쇄 압박...호르무즈 일촉즉발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외 오가는 선박 항행 방해 안해" 이란 강력 반발...갈등 격화·휴전 합의 양측 중대 기로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선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을 차단하는 역(逆) 봉쇄에 나서며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1시간에 걸친 양국 간 첫 종전 협상(파키스탄·현지시간 11~12일)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된 가운데 휴전 이후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찰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나온 첫 메시지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이 전쟁 기간 자국산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료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온 점을 겨냥,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남은 휴전 기간 이란의 자금줄을 쪼여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종전협상 구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중부사령부는 다만 "이란 항구 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대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한 해협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 이외의 제3국을 오가는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중부사령부는 봉쇄 조치 시작 전에 상선 선원들에게 추가 정보가 제공될 예정



아랍에미리트 코르파칸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만만 및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모든 선원에게 운항 시 '선원 공지' 방송을 주시하고 교신 채널을 통해 미 해군과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

도하런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이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서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만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

도하런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이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미-이란 간 휴전 합의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미군과 이란군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사우디, 韓전공II 조기인도 타진 방공공백 우려에 '탈미' 움직임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 아가 한국 한화위와 LIG넥스원에 증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공II)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증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